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안수진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desireji20@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Birmingham / Public Management	(국가) UK
기 간	2016. 1 ~ 2016. 12	[귀국일: 2017년 1월 3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7년 1월 일

신 청 인 : 안 수 진 (인)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mmonly known as the United Kingdom (UK) or Britain)은 유럽 대륙 서북쪽에 있는 섬나라로, Great Britain 섬(England, Scotland, Wales)과 아일랜드섬 북쪽의 Northern Ireland로 이루어진다.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이 성립될 때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남음으로써 현재의 연합왕국이 되었다.

Birmingham city는 영국 West Midlands의 주요 도시이자 대도시 자치구이다. 1,101천명 정도의 인구로 런던 외부 가장 크고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중세 시대에는 과학, 기술, 경제 개발에 있어 전 세계 발전의 최전선에 있었고 Midlands 계몽주의 이후 산업 혁명의 중심, 18세기에는 세계 굴지 현대 산업사회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영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 산업 증기 엔진이 버밍엄에서 발명되었다.

버밍엄의 경제는 서비스 부문이 주이다. 도시는 세계화와 세계 도시 연구 네트워크에 의해 Beta 세계 도시로 선정되었고 운송, 소매, 이벤트, 회의의 Hubs로 주요 국제 상업 센터이다. 경제는 \$ 121.1bn (2014) GDP로 영국에서 두 번째이다. 여섯개 대학과 고등 교육의 중심지이며 주요 문화 기관(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발레단, 레퍼토리 극장, 도서관과 미술, 음악 포함), 국제적인 명성을 즐길수 있는 활기 차고 외국인 관광객에 의해 영국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이다.

버밍엄 사람들은 Brummies, 브룸 도시의 별명에서 유래 된 용어이며 독특한 Brummie 억양과 방언이 있다.

버밍엄 대학 (University of Birmingham, UOB)은 Edgbaston에 위치한 공공 연구 대학이다. 2015/16의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영국에서 15위 세계에서 76위를 기록했다. 학생수는 영국에서 4번째로 20,100명정도이다. 랜드마크인 시계탑이 상징이며 졸업생은 전 영국 총리인 Neville Chamberlain, Stanley Baldwin, 작곡가 Sir Edward Elgar와 8명의 노벨수상자가 있다.

1월경에 도착했을때 겨울치곤 추위를 느낄수 없을정도로 따뜻했다. 눈도 내리지 않지만, 역시나 비는 365일 내린다. 버밍엄은 2가지 날씨밖에 없다. 비오는 날, 추운날 또는 춥고 바람부는 날.. 작은 접이 우산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비가 온 종일 내릴때도 있지만 잠깐 오고 그친다. 그래서 영국사람들은 우산을 잘 쓰지 않는다. 잠깐 낮에 햇빛이 나고 따뜻한 날도 있지만 아주 잠시 뿐이다. 3월말부터 BST(British Summer Time)이 시작되고 10월말에 해제된다. 밤 9시가 되어도 해는 지지 않는다.

학교 Accommodation 에서 생활하였다. 기숙사는 아주 많고 여러가지 Type이 있어 고를 수 있지만 아주 비싸다. 본인은 새로지은 Flat 에서(1 FALT에 6명 공동, 방, 욕실은 따로 이지만 거실 주방은 공동) 하루 22파운드를 지불했다. 보증금으로 550파운드를 미리 내고 들어가서 나머지를 월별로 아님 일시불로 지불하면 된다.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좋았고 기숙사이나 위치는 좀 멀었지만 운동삼아 걸어다니기도 하고 버스

를 이용했다. 기차나 버스는 학생을 위한 할인을 해준다. 학생신분으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가족끼리 온 다른 학생들은 주택을 구입하여 가족끼리 생활하고 아니면 학교 인근 FLAT을 계약하여 생활하면 기숙사보다 훨씬 저렴하다.

학교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city center가 있다. 주로 쇼핑, 문화생활, 외식은 편리하다. China quarter 가 형성되어 있고 중국음식점, Oriental Market, 여러나라의 음식, 영화관, 공연장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음식점이 3개정도 있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Seoul Praza: Selly Oak 근처 한국슈퍼가 있어 웬만한 식재료는 다 구할 수 있다) 한국에서 먹는 스타일과는 완전 판이하다. Morrisons, Tesco, Sainsbury, Waitrose 등 대형슈퍼에서 신선한 제품을 싸게도 구입할 수 있다. 영국에는 작고 또는 큰 Pub 이 많다. 3-4파운드 내에서 1pint 맥주로 웃고 얘기하고 즐길수 있다. 영국음식은 특징이 없다. 짜기도 하고 감자를 요리하여 곁들여 먹는데 지겹기도 하다. 중국사람, 아랍, 인디언이 주로 많고 유럽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정말 글로벌한 도시이고, 안전한 도시이다. 현지인들과 어울려 다양한 문화생활을 많이 하기를 권유하고 싶다.

관광을 즐기려면 런던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고, 버밍엄 인근 Warwick, Bath, Lake District 등 멀리로는 Wales, Scotland, Ireland 등등 오래된 성과, 전통, 자연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접한 유럽 전역을 돌아볼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영국내에는 기차를 이용하면 되고, 학교에서 마련하는 Daytrip을 이용하면 가까운곳은 저렴하게 다녀올수도 있다. 유럽은 저가항공을 이용하면 이틀삼일 일정이든 장기간이든 언제든 갈 수 있다.

본인의 전공과목은 Department: School of Government and Society의 Public Management 이다. 20명이 채 안되는 Class로 중국에서 온 General 학생들이 대분이며, 한국 3명, 남미, 아프리카, 영국인들은 주로 Part time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다. 6개 Module(40%), Dissertation(60%) 을 마쳐야 졸업이 가능하다. 각 1개 Module 당 4일 온종일 수업으로 수업일자가 적다. 하지만 Module 당 2개의 Assignment(Essay 3,000자) 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Reference 를 읽어야 하고 작성에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Essay 쓰기 실력이 많이 향상된다. International Student 를 위한 Tutorial Session 이 따로 있다. 의무 참석은 아니지만, 강의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질문사항에 대해 Teacher가 답변해 준다. Dissertation 은 10,000-15,000자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리 주제를 정하여 평소에 조금씩 정리해 두는게 좋다. Essay 작성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도서관에 다녔다. 학기중에 도서관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향상되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주로 운동하고(수영장 등이 있음), 학교식당, 카페등이 저렴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음식은 그저그렇다. 무료영어 수업을 매일 1시간씩 강의해 주고, 에세이 작성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작은 소규모 그룹이 학생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차원의 행사는 많지 않다.

버밍엄대학과 KDI간 제휴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1월학기는 시작이라 Offer를 받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2년째부터는 체계적으로 잘 되리라 본다. 비자는 인터뷰를 따로 하지 않고 서류검토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파운드화가 Brexit 이후 1,900원대에서 1,400원대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많이 유리해졌다고 본다. 미국영어에 익숙하여 영국식 발음 특히 버밍엄 특유는 발음으로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단히 매력이 있다.

한국학생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수 있고 다른 한국에서 온 가족들과 교류가 많다. 하지만 본인은 혼자생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social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Meetup을 통해 많은 영국인들과 친구를 만들었다. 여러 관심분야를 선택해서 offline 모임에 참석하면 되는데, 주로 Language Exchange, International Group, Travel, 나이별 그룹, 맛집, Art, Photo, Hiking, Seminar 등 다양하다. 학교에서 정보를 주는 Internship 이나 Volunteer working 에 지원하여 Career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City council 주관하는 평생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 에도 참여할 수 있다.

GMP 프로그램은 공직 생활에 있어 탁월한 선택이며 누구보다 혜택받았다는 것을 느낀다. 1년간 KDI School 에서 훈련을 받았고 2년차 해외대학은 잘 적응이 될수 있게 KDI에서 충분히 Support를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여 1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